

## JUVENILE TITLES

### FICTION

제목 : UNDERCOVER ROBOT: MY FIRST YEAR AS A HUMAN

가제 : 인간이 된 로봇 소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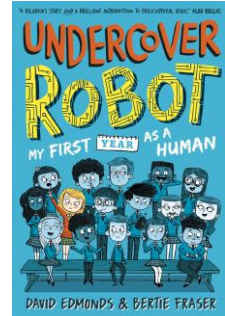
저자 : David Edmonds, Bertie Fraser

출판사: Walker Books

발행일: 2020년 7월 2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 사랑스러운 로봇 도티, 도티의 눈으로 바라본 인간들의 삶과 모습을 재미있게 그려낸 이야기

최첨단 안드로이드 도티는 수백 만 파운드를 타기 위해 1년 내내 열두 살짜리 여학생으로 가장하고 살아야 했다. 하지만 도티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난관들에 끊임없이 부딪혀야 했다. 도티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인간이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했다. 인간이 아닌 도티의 관점을 통해 드러나는 인간의 모습, 오해, 철학적인 논제들이 유쾌하고 유머러스한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사랑스럽고 재미있는 이야기이다.

로봇인 도티의 아빠는 철학과 교수로 생명 버튼을 눌러 도티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사람이다. 도티의 아빠는 소프트웨어, 전자, 플라스틱, 심리학, 언어학, 의학 및 기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속한 대학 연구 팀을 이끌고 있는데 이 팀은 세상을 바꿀 위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팀이었다. 그리고 그 팀이 맡고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도티였다. 도티는 실험실에서 처음으로 인간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한지 18개월만에 실제 세계로 투입되었다. 입학 첫날, 도티는 처음으로 수 많은 아이들을 한꺼번에 만났다. 첫 등교일 도티가 부여 받은 임무는 우정 점수 35점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도티는 새로운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연구원들이 알려준대로 상대방과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하고 그에 따른 우정 점수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하지만 도티 주변의 어린 아이들은 전혀 이 사실을 몰랐고 도티가 평범한 열두 살 소녀가 아닌 로봇이라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 도티는 센서를 통해 공기 중의 인간이 땀과 인간이 뿜어내는 가스를 감지할 수 있었다. 도티는 그 물질 때문에 혐오감까지 느꼈지만 몇 개월 후 도티도 인간들처럼 가스를 방출하는 기능을 되었다. 도티는 그냥 겉모습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실제 인간과 다른 없는 로봇으로 개발된 최초 안드로이드 로봇이었고 프로젝트 계획에 따라 일년 내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절대 인간들에게 자신의 정체가 로봇이라는 것이 탄로 나서는 안됐기 때문이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도티는 어마어마한 상금을 자신을 만든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 것이었고 이에 더불어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될 터였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던 것과 달리 실

제 상황에서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도티는 실험실에서 늘 어른들과 대화하는 연습만 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의 말투를 흉내 낼 수도 없었고 현실 속에서 아이들은 사람들과 눈을 잘 마주치지도 않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도티는 실험 파트너 마틴과 함께 불꽃 연소 실험을 하던 중 마틴의 교복 넥타이에 작은 불꽃이 붙자, 로봇임을 감추는 것 보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판단한 후 교실 구석에 있던 소화기를 가져와 마틴에게 겨냥했다. 불은 꺼졌지만 주변 친구들과 선생님은 도티가 마치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이상하게 쳐다보았다. 선생님은 도티에게 과민반응을 한 것이라며 핀잔을 줬고 말썽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교감 선생님의 호출까지 받았다. 결국 도티는 더 이상 말썽을 일으키지 않도록 모든 수업이 끝날 때까지 독방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야 했다. 집에 도착하자 도티의 아빠는 도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연구원들이 24시간 내내 도티를 관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티에게 프라이버시 같은 건 없었던 것이다. 아빠는 도티에게 마틴이 학교 측에 도티가 자신을 괴롭힐 마음으로 소화기를 발사한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도티는 사람들의 표정을 분석해 자신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며 어마어마한 상금도 놓칠 것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하지만 얼마 후 과학 천재 마틴은 도티의 아빠가 알고 있는 프로젝트의 진실에 대해서 알게되면서 이 학교에 로봇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면 엄청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되었다. 그 후 마틴도 도티가 로봇인지 아닌지 증명하게 위해 도티 주변을 돌며 도티를 공격하려 했다. 때문에 도티는 더욱 더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완벽한 인간 어린이처럼 되는 방법을 배워야 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인간과 로봇의 차이는 무엇인지, 과학 기술 발전이 가져다 줄 여러 의문들과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학습적이고 유쾌한 소설이다.

#### <저자 소개>

**버티 프레이저 (Bertie Fraser)**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구독자를 갖고 있는 어린이 이야기 팟캐스트 'Storynory'를 만든 사람이다. 그는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고전을 공부했으며 여전히 고대 세계에 매료되어 있다. 그는 러시아에서 프리랜서 기자로 일했으며 BBC 월드 서비스의 프로듀서로 일했다.

**데이비드 에드먼즈 (David Edmonds)**는 옥스포드 대학의 Uehiro 실용 윤리 센터의 저명한 연구원이며 여러 수상 경력을 가진 BBC 기자이다. 그는 존 아이디나우 (John Eidinow)와 함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Wittgenstein 's Poker (가디언 퍼스트 북상 후보작)를 포함하여 12 권의 책을 쓰고 편집한 바 있다. 그는 여러개의 팟캐스트의 진행을 맡고 있는데 그 중 『Philosophy Bites』는 거의 4 천만 번의 다운로드 기록한 바 있다.

제목 : STORM

가제 : 폭풍과 함께 태어난 소녀, 프란시스

저자 : Nicola Skinner

출판사: HarperCollinsChildren'sBooks

발행일: 2020년 4월 2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아이들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 들일까? 엄청난 호평을 받은 바 있는 소설 『BLOOM』의 저자가 쓴 신작**

주인공 프란시스 프리다 리플리는 무시무시한 폭풍이 몰아치던 날 한 해변가에서 태어났고 자연스럽게 폭풍같은 분노를 가진 소녀가 되었다. 당시 프란시스의 부모님들은 프란시스가 태어나던 날 전혀 출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자동차나 전화와 같은 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 때문에 프란시스의 부모님들은 이 난리 통에서 태어난 아이가 꽤 엄청난 성미를 가진 아이로 자랐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리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12년 후 어느 날 이 마을에 큰 재앙이 찾아왔고 이 날 일어난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들과 마을 전체가 통째로 사라져 버리는 비극이 일어났다. 그 후 시간이 흘러 마을은 회복되었고 다시 이 해변에 많은 관광객들이 나타나자 100년 후 이 곳에서 유령으로 다시 깨어난 프란시스는 앞으로는 더 화낼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프란시스는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폭풍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프란시스는 이 분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뛰어난 상상력과 독창성이 돋보이는 소설이다.

프란시스가 태어난 날 엄마는 평소에는 늘 잠자코 편안한 상태에 있던 아이가 폭풍이 몰려 오는 소리가 들려오자 갑자기 뱃속에서 발길질을 하는 거친 태동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12년 후 프란시스는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지은지 300년이나 넘은, 언덕 위의 작은 오두막에서 마음껏 바닷가 경치를 즐기며 성미는 좀 거칠지만 건강한 아이로 자랐다. 항구 쪽에 자리 잡은 새로 개업한 레스토랑에서 친구 아이비가 가족들과 외식을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프란시스는 하루 뒤 개학날이면 곧 아이비를 볼 예정이었지만 부모님에게 그곳에서 아이비네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자며 졸랐다. 하지만 아이비의 부모님은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고 프란시스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잔뜩 성질을 부린 후 방에 들어갔다. 그러나 곧 프란시스의 엄마는 그 식당에서 아직 며칠 남긴 했지만 미리 프란시스의 생일 파티를 하자고 말했다. 그리고 이것이 곧 비극의 시작이었다.

프란시스의 온 가족들이 항구 마을로 내려갔을 때 프랑스 북부 지진으로 발생한 끔찍한 쓰나미가 찾아왔고 이 엄청난 자연재해가 결국 온 마을을 휩쓸어버렸기 때문이다. 만약 프란시스가 고집을 부리지 않아서 가족이 그저 집에 머물렀다면 프란시스네 오두막이 워낙 높은

언덕에 있었기 때문에 모두들 안전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프란시스가 내린 그날의 결정은 결국 최악의 결정이 되고 말았다. 그로부터 100여 년 후, 프란시스는 아랫마음이 아닌 원래 자기가 자던 침대 위에서 깨어났다. 처음 눈을 떴을 때, 프란시스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온몸은 흠뻑 젖어 있었고 다리에는 조개 껍질들이 붙어 있었다. 프란시스는 얼마 후 자신이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프란시스는 말도 할 수 있고, 걸을 수도 있고 생각도 할 수 있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홀로 남아 있는 그 집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었다. 그러나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비닐에 싸여 있던 현관문이 큰 소리를 내며 열렸고 ‘질’이라는 여자가 들어오더니 ‘사후세계 클럽’에 가입할 것인지 물었다. 프란시스는 그제서야 자신이 정말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프란시스는 쓰나미 때문에 다른 가족들과 함께 물에 빠져 죽은 아이였지만 여전히 지상에 머물고 있는 존재였던 것이다. 프란시스는 질의 안내에 따라 사후세계 클럽 버스에 올라탔다. 질은 프란시스에게 자신을 비롯한 사후세계 클럽의 회원들은 모두 ‘투두 (toodoo)’로 불리는 존재들이며 지상에서 마치지 못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평범하게 죽지 못하고 아직 이 곳에 남아 있는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이제 프란시스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다. 얼마 후 프란시스의 집에 일꾼들이 도착했고 프란시스는 그 곳이 관광명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곳에는 프란시스의 가족들의 옛 모습을 재현한 홀로그램까지 등장했다. 게다가 방문객들은 그 집 자체보다 프란시스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 더 관심을 가졌다. 그러던 어느 날 크롤러와 그의 아들 스캔런이 이 집에 찾아왔는데 그들은 유령 사냥꾼들로 즉시 프란시스의 존재를 알아챘다. 프란시스는 스캔런에게서 이상한 악취가 난다는 것을 느끼긴 했지만 그와 친구가 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프란시스는 유령들을 붙잡아 세계 최초 유령 열차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던 크롤러에게 잡혀 봉인되고 말았다. 결국 프란시스는 유령 단원들에 들어가 유령 쇼에서 활약하게 되었다.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요란한 유령인 프란시스는 유령들 중에서도 가장 스틸 있고 공포스러운 유령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 년 후 유령들이 하나 둘 극단에서 사라지기 시작하고 프란시스는 스캔런에게서 나던 악취가 그의 내면의 영혼이 썩어 들어가면서 풍기는 냄새라는 것을 깨달았다. 프란시스는 결국 자신이 이 생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는 끔찍한 아버지와 살며 영혼마저 병들어 가고 있는 스캔런의 삶을 구하고 그 비참한 삶을 끝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프란시스는 친구를 위한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평온한 안식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린 유령의 시선으로 바라본 사후 세계와 그 유령이 펼치는 독창적인 모형의 세계를 그린 흥미로운 소설이다.

#### <저자 소개>

니콜라 스킨너 (Nicola Skinner)는 프리랜서 기자이자 카피라이터이며 영국 가디언지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한 바 있다. 그녀의 첫 YA 소설 『Bloom』은 2019년에 출간되어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고 이 책은 그녀의 두 번째 소설이다.